

광주시,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한다

피해자·유족 요양생활수당 등 올해 12억6천만원 흉부 CT 검사 병원·지하철역사 홍보 전단지 배부

광주시는 석면으로 고통받는 건강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에 나서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석면 피해 구제 급여는 석면 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한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41만원에서 최고 174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며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게는 330만원의 장례비와 최저 825만원에서 최대 약 4천950만원까지 특

별유족 조의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과거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거나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 62명에게 석면 피해 구제 급여(환경부기금 포함)로 12억6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석면은 단열재·천장재·슬레이트 등 각종 건축자재 및 방화제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돼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제품 제조·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석면에 노출된 경우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원

발성 폐암 ▲석면폐증 ▲폐기능 장애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1군 발암물질에 해당돼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병원과 협업해 석면 건강피해자를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석면 노출 피해 구제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석면 피해의심자를 방문해 석면 피해 인정부터 구제 급여 지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도 전남대학교병원 등 흉부 CT촬영이 가능한 병원 56곳을 찾아 홍보 전단지 등을 배부하고, 지하철역사·행정복지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박선강 기자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언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석면 관련 질환으로 의심되면 광주시 석면질병 검사기관인 전남대병원 등에서 검사받은 결과서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각 거주지 자치구 환경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매월 심의를 통해 석면 피해 인정 사실을 결정하게 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지되면 구제 급여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오수 환경보전과장은 "과거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시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석면 피해를 입었는데도 구제를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역새길 걸으며 이웃 사랑 실천해요” 지난 2일 광주서구 영산강천수공원 일대에서 열린 5.2km의 거리를 만드는 '제3회 함께서구, 오~잇길 걷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역새길을 걸으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오잇길 걷기대회는 참가비 5천원의 나눔으로 우리 '이2웃'의 희망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은 기부 행사다. /김애리 기자

다문화 이해 확산 지역사회 연대감 제고

전남도, '다양성의 만남, 하나 되는 우리' 주제 다문화박람회 성료

전남도가 인구 감소 추세 속 다문화 가족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내외국인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지역사회 연대감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일까지 이틀간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등 2천여명을 초청해 '제1회 전남도 다문화박람회'를 개최했다. '다양성의 만남, 하나 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서로

존중받고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기를 희망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로 펼쳐졌다. 첫날인 지난 1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하나 됨을 강조할 수 있는 주제로 그림, 글짓기, 동시를 쓰는 어린이 종합예술대회가 열렸다.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자녀들이 참여했다. 이어 2일엔 마술공연, 베트남 전통춤 공연을 식전행사로 시작해 개회식,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유공

자 표창식에는 다문화 인식 개선 등 다문화사회 구현에 기여한 12명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한 9명이 전남지사 표창을 받았다. 명정환 행정부지사는 "다문화박람회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공존토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연대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람회에선 또 초등학교 주요 과정을 미리 교육, 자녀의 학습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다문화 엄마학교에서 초등학교 검정고시

에 합격한 32명의 다문화 엄마를 격려했다. 다문화가족 부모와 친구들이 한국어와 부모의 언어로 발표하는 이야기 경진대회(이중언어 페스티벌), 다문화가족-자녀들이 참가해 각 나라의 전통춤, 케이(K)-팝 댄스, 노래, 악기연주 등 그동안 감춰둔 끼를 발산하는 문화예술경연대회가 치러졌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개별 행사로 진행됐던 세계인의 날 행사, 이야기 경진대회(이중언어 페스티벌), 다문화가족 문화예술경연대회가 함께 열렸다. 전남지역 다문화가족은 1만6천325세대, 5만2천817명으로 전국(41만5천584세대, 119만1천768명)의 약 4.4%를 차지해 7번째로 많다. /양시원 기자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강화 방안 모색

도, 여수서 유관기관 워크숍...전남형 미래 시스템 등 논의

전남도는 지난 1일까지 이틀간 여수 라마다호텔에서 '2024년 응급의료 유관기관 워크숍'을 열어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응급의료 핵심 역할을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관계자, 도, 시·군 담당자 등 유관기관 15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전남 응급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응급의료 현장 이송 현황 ▲재난 발생 시 의료기관 대응 ▲인공지능(AI) 급급차 운영 현황과 미

래 ▲전남형 미래 응급의료 시스템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현장 소통과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함에 따라 2시간 응급의료 현장에 애쓰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유관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응급의료 관계자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지속적인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자"고 당부했다. /양시원 기자

도, 연말 고향사랑기부제 인증 이벤트

11월 담례품 후기 작성 시 전남쌀 추가 제공

전남도는 3일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연말 고향사랑기부제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에선 연말정산 등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에 맞춰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전남 쌀 소비 촉진 활동도 펼친다. 이벤트 참여는 전남 외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 농협은행을 통해 전남도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후 고향사랑e음에서 담례품을 주문·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인증 이벤트에 참여한 기부자에게는 기존 담례품 외에 전남 쌀이 추가 담례품으로 제공된다. 추가 담례품은 2만원

상당의 나누우리쌀, 왕건이탐낸쌀, 향토랑쌀, 나비쌀, 수호천사건강미 등 전남 쌀이다. 강경문 고향사랑과장은 "연말 고향사랑 기부를 실천하고 보다 뜻깊게 보내길 바란다"며 "이번 이벤트가 전남 쌀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전남 농가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담례품이 제공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양시원 기자

市, 오늘 하남산단서 산업재해예방 캠페인

광주시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남산단 내 KBI지식산업센터 앞 광장에서 하남산단단지 내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 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은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역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3개 관계기관 및 시민실천단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의미로 무료 커피차를 운영해 '나부터 안전 실천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남산단 내 근로자들이 많이 모이는 휴식공간을 이용해 ▲지게차 및 지붕공사 등 산업안전 수칙 준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중대재해 정보 오픈 채팅방 안내 등 산업현장 필수 안전 사항을 홍보·안내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 광주경영자총협회 등과 산업안전교육 및 패트를 합동 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 협업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